

노동정책연구
2016. 제16권 제2호 pp.33-6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의중-시장임금 갭이 대졸자 첫 취업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

최기성**

본 연구는 대졸자의 의중-시장임금 갭이 의미하는 눈높이 불일치가 취업을 저해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중위값은 6개월로, 4년제 졸업자(7개월)가 전문대 졸업자(4개월)보다 길었다. 둘째, 4년제 졸업자의 졸업 전 월평균 의중임금(230.5만 원)이 시장임금(207.0만 원)보다, 전문대 졸업자의 의중임금(186.4만 원)이 시장임금(159.1만 원)보다 높았다. 셋째,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변수로는 성(남성), 연령(남성만), 최종학력(남성은 높을수록, 여성은 낮을수록), 국·공립대, 수도권(남성만), 공학 및 의약계열, 대학평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수, 여학연수(남성만), 일 경험, 자격(여성만), 직업훈련, 입학 당시 부모소득(여성만) 등으로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취업을 위한 여학연수(1년 이상), 일 경험(취업 위한 경험 쌓기), 자격(1년 이상 준비), 훈련(6개월 이상) 등과 같은 취업역량 강화 활동의 내실화는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다. 넷째, 의중-시장임금 갭이 의미하는 눈높이 불일치는 전문대 전체와 4년제 여성 졸업자의 구직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4년제 남성 졸업자의 경우에는 공시족(公試族)에 의한 영향으로 의중-시장임금 갭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 구직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노동공급 측의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눈높이 조정만으로는 대졸자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의중-시장임금 갭, 대졸자 첫 취업, 확장형 콕스 회귀분석

논문접수일: 2016년 2월 4일, 심사의뢰일: 2016년 2월 2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7일

* 이 논문은 『대졸 청년층의 교육투자 및 편익 연구』(최기성, 2015)의 제4장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를 표한다.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ckisung92@keis.or.kr)

I. 머리말 : 문제 제기

실업에 따른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는 단기적으로는 인적자본 유실을 야기하여 청년층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구직자와 사업주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실업에 따른 낙인(stigma)효과 등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업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비용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중화 외(2007)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설명하였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노동공급과 수요 불일치를 들 수 있는데, 예컨대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재의 청년 노동시장에 적용하여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공급 특성은 70.0%를 상회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고학력 신규구직자로 요약된다. 이에 견주어 2000년 이후에 IT 등을 기반으로 한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개편, 경영시스템의 효율화 등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지연,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등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줄고 있고, 대기업들은 훈련비용이 들지 않는 경력직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학력 신규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교육과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특정 산업과 직업만을 선호하는 현상,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등도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야기함으로써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실업의 원인, 규모, 특성 그리고 이를 완화하는 제도나 정책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에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졸업 후 구직기간 증가에 따른 낙인효과, 인적자본 유실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사건의 발생을 분석하는 확률모형 대신 기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생존분석을 사용한다. 나아가, 청년층의 취업준비 활동의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변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포함한 확장형 콕스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둘째는 대학 명성이 대졸자 취업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수능점수를 대학 명성의 대리변수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능점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 대학의 학문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명성을 측정 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졸자의 의중-시장임금 갭이 의미하는 눈높이 불일치가 청년 취업의 장애물인가를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청년층(대졸자) 취업결정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소개와 변수 설정 그리고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 제Ⅳ장 분석결과에서는 표본의 기초통계, 의중-시장임금 갭 추정, 실증모형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한계점을 논의한다.

Ⅱ. 청년층 취업결정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검토

최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어감에 따라 청년들이 질 낮은 임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눈높이에 맞는 취업을 위한 일자리 탐색기간을 늘리고 있다. 청년들의 고용사정 악화와 미취업(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증가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저하에서 원인을 찾는 고전과 경제학

과 모순된 사회구조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에서 원인을 찾는 비주류경제학¹⁾이 대립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들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다면 대졸자를 포함한 청년층들의 취업결정 과정을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이 유용하다.

직업탐색이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다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알 수 있으므로 구직활동이 불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을 경험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직업탐색에는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이 수반된다. 직업탐색을 오래할수록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구직활동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시간 투자가 따르고 이미 제안받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도 따른다. 구직 청년들은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할 때까지 직업탐색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구직자의 취업을 결정하는 데는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의중임금은 구직자가 제안된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으로 보통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로 측정된다. 만약, 구직자의 의중임금보다 제시된 시장임금이 높다면 제시된 일자리를 받아들여 취업자로 전환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업자로 남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중임금이 낮으면 구직기간이 짧아지고, 의중임금이 높으면 구직기간이 길어진다(Mortensen, 1986; 조우현, 1998; Kaufman & Hotchkiss). 이러한 청년층 의중임금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졸업 대학 소재지,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병희 외, 2009).

후술되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보겠지만,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중임금에 관한 자료 부재 등으로 인해 이를 분석에 포함시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이론이 대표적이다. 정보의 불완전성(imperfect information),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존재, 성, 연령, 학력 등에 대한 차별, 문화와 관습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인 힘(institutional forces)과 비경제적 장벽 때문에 노동시장이 1차(핵심)와 2차(주변부)로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노동시장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관행, 임금, 그리고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대졸자(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취업결정 요인들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학교 요인들, 취업역량 요인들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먼저, 성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 경우라도 여성이 혼인,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기대근속기간이 짧아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남성보다 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안국, 2005; 김정숙, 2009). 다음으로 연령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15~29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정규직 취업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남기곤, 2009)가 있는 반면, 대졸자의 기타 취업영향 변수와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채창균·김태기, 2009). 이처럼 청년층에서 연령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이유는 연구마다 분석 대상, 취업 정의 그리고 분석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혼인여부는 성별에 따라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남성은 기혼이 미혼에 비해 여성은 미혼이 기혼에 비해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남기곤, 2009). 이는 가구 내에서의 성별 역할이 남성은 일을 통한 소득창출을, 여성은 육아 및 가사를 담당하는 형태인 전통적 분업구조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모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조우현, 1995; 채창균·김태기, 2009; 신혜숙·민병철·남수경, 2014).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첫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층에서 실업확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직경로가 개인적 네트워크와 같은 비공식적 경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더 자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

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나. 학교 요인

최종학력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적으로 전문대학이 고졸자나 4년제 대졸자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주엽·홍서연, 2002; 신종각·김정호, 2008). 이는 2000년부터 신규 4년제 대졸자의 노동공급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들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전문대의 개설 전공과 교육과정이 현장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더 반영하여 졸업생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향상시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유형의 경우 4년제 대졸자에 국한하여, 졸업 대학이 국·공립대인 경우가 사립대보다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채창균·김태기, 2009). 일반적으로 사립대가 국·공립대에 비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전공에 대한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의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위 연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몇 개의 유명 사립대를 제외하면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대학 입학 점수(수학능력평가, 내신)가 높는데, 입학 점수와 취업에 유리한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이 강하게 상관되어 있다면 이러한 결과가 가능할 것이다.

대학 전공은 인문·자연계열에 비해 사회·공학·교육·의약계열의 취업확률이 더 높았다(채창균·김태기, 2009;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이는 노동수요 주체인 기업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이다. 즉,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경쟁심화,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 입각한 투자를 선호한다. 이러한 기업 선호가 채용에도 적용되어 사회·공학·의약계열과 같이 채용 후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공계열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출신 대학의 명성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명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명성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규용·김용현(2003)은 4년제 대학별 입학생의 대학입학 수능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가(서울 시내 상위권 대학)”군, “나(서울 시내 및 수도권)”군 그리고 “다(나머지 대학)”군으로 구분하여 대졸자의 미취업 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른 영향변수

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군이 “나”와 “다”군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왔다. 이와 유사하게, 채구목(2007)은 수능성적을 이용하여 수도권 국공립대, 수도권 사립대, 비수도권 국공립대, 비수도권 사립대, 수도권 전문대, 비수도권 전문대와 같이 6개로 나눈 후 수도권 사립대를 기준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사립대와 비수도권 전문대가 기준그룹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았으나 비수도권 사립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 취업역량 요인

대학성적이 좋을수록 취업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채구목, 2007; 신혜숙·민병철·남수경, 2014). 대학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전공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었음을 의미하거나, 학업에 성실히 임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고용주에게 보냄으로써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 어학연수 경험은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첫 일자리에서 임금도 상승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안준기(2009)는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어학연수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을 구축한 후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경험이 첫 직장 구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임금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증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이규용·김용현(2003)은 취득 자격증 개수가 증가하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자격증 개수(또는 보유)가 취업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박성재·반정호(2006)는 대졸자의 자격증 취득이 미취득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단축시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김정숙(2009)은 취득 자격증 개수가 증가하면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격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자격 검정 내용과 방법이 부적절하여 시장에서 신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스펙 쌓기를 위해 통용성이 낮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유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함으로써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이 무작위적

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른 자기선택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이다. 즉,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부족한 개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선택편의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자가 곧 취업역량 부족자로 해석되어 자격증 미취득자에 비해 취업확률이 낮게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교육훈련 참여가 취업확률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박성재·반정호(2006)는 졸업 후 첫 취업 전에 받은 직업훈련은 4년제 대졸자의 미취업기간을 단축시키지만 대학 재학 중 직업훈련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기곤(2009)은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가 남녀 모두에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확률이 낮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자격증의 취업효과와 유사하게 자기선택편의나 교육훈련 질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효과도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신종각·김정호(2008)는 재학 중 직장경험이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반면, 채창균·김태기(2009)는 전문대생의 일자리 경험은 취업확률을 증가시키나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일자리 경험의 취업효과는 일자리를 경험한 목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업체 인턴, 현장실습 등과 같이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한 일자리 경험은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한 경험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확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에 경험한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가 유익했다고 인식할수록 취업확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와 대학이 갖는 영향을 통제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한다는 결과(신혜숙·민병철·남수경, 2014)도 제시되어 있다.

라. 노동시장 요인

청년층 취업에 노동시장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앞서 소개한 3가지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요인들을 대졸자가 직면하는 노동시장 여건 측면에서 실업률과 졸업학교 소

재지(지역노동시장)를 고려하고, 노동시장 구조 측면으로는 졸업 후 구직기간과 대졸자의 의중-시장임금 갭 등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노동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실업률은 대졸자 취업확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주엽·홍서연, 2002; 남기곤, 2009). 이러한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또는 지역 간 실업률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공식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대리변수로 졸업학교 소재지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채구목(2007)은 서울을 기준그룹으로 하여 경기·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제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에 비해 경기·인천의 취업확률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 졸업자가 비수도권 소재 졸업자보다 취업확률이 높거나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더 짧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김정숙, 2009; 유홍준·정태인·전은주, 2014). 따라서 노동시장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업률보다는 졸업학교 소재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구조 측면 중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부(-)의 기간의존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남기곤, 2009).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낙인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끝으로 의중-시장임금 갭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 갭이 클수록 취업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우현(1995)은 청년 여성의 경우 의중-시장임금 갭이 클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자발적 실업의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은 그 반대로 분석되어 비자발적 실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석에 사용한 시장임금 추정에 표본선택 편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임금 갭이 특정 시점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및 변수

가. 분석 자료

대졸자 의중-시장임금 갭이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2010’) 자료를 사용하였다.²⁾ 분석을 위한 표본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구축된 18,085명 중 3차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2,481명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졸업 시 연령이 35세 이상이거나, 1차 조사에서 지난 4주간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 또는 군입대 대기자이거나, 졸업 후 첫 취업이 비임금근로자인 3,032명과 졸업 전(2009년 8월 졸업자는 2009년 7월 이전, 2010년 2월 졸업자는 2010년 1월 이전)부터 일하고 있었던 2,221명도 연구목적에 부적합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344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나.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은 임금근로이면서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와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아르바이트, 임시·일용근로자,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졸업 후 미취업기간은 월 단위로 측정하였다. 미취업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처리방법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졸업 시점이 2009년 8월과 2010년 2월로 미취업기간의 시작시점이 표본 간에 차이가 있지만 관찰 종료시점(2013년 9월)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관찰기간이

2) 2015년 10월 현재 2011년과 2012년 졸업생에 대한 1차 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들은 미취업 관찰 기간이 19~24개월로 청년층의 역동성을 관찰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아 GOMS2010을 사용하였다.

2009년 8월 졸업자(1~48개월)와 2010년 2월 졸업자(1~43개월)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관찰기간의 일치를 위해 미취업기간 시작시점을 2010년 3월로 설정하면 2009년 8월 졸업자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좌측절단 문제와 함께 2009년 8월 졸업자 중 2010년 3월 이전 취업자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최종 분석 표본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찰기간을 1~43개월로 설정하되, 2009년 8월 졸업자의 졸업시점을 고려하여 관측시점에 따른 미취업기간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³⁾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대졸자 취업영향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겠다.

먼저, 성별은 여성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고, 연령은 2010년 1차 조사 기준 연령(2010-출생연도),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미혼, 이혼, 사별)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기혼, 별거=1)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대학 입학 시 부모님 월평균 소득을 100만 원 미만(안 계심 포함), 100만~300만 원 미만, 300만~500만 원 미만, 500만~700만 원 미만, 700만~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한 후 300만~500만 원 미만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학교요인으로 최종학력은 교육연수(Year of Schooling)로 설정하여 전문대는 14, 4년제와 교육대는 16으로 변환하였고, 출신대학 유형은 사립대를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국·공립=1)로 분석하였다. 전공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7대 계열로 측정되어 인문계열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학별 명성평가는 2단계에 걸쳐 이뤄졌는데, 1단계에서는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 순위(2014년)와 웨보메트릭스(Webometrics) 대학 순위(2015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평가 순위를 정하였다. 1단계 명성평가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중앙일보의 대학종합평가 순위는 4년제 대학 중 100여 개 대학의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판·사회진출도 등을 조사하여 종합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일보 평가방식의 장점은 정량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 등과 같은 정성적인 내용도 평가에 반

3)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2010년 2월 졸업자만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GOMS 2010에서 2009년 8월 졸업자 비중이 17%로 표본 손실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영된다는 점이다. 반면, 평가대상으로 4년제 대학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종합순위를 40위까지만 발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웨보메트릭스의 대학 순위를 함께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웨보메트릭스는 스페인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Cybermetrics Lab에서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순위이다. 웨보메트릭스의 대학 순위는 해당 대학의 Visibility와 Activity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결정된다. 먼저, Visibility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으로의 링크 수를 집계한 것으로, Visibility가 높다는 것은 대학의 명성, 학문적 성과, 정보가치 등이 높다는 것으로 이를 “virtual referendum”라 부른다. Activity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해당 대학의 웹페이지 수, 연구보고서 등의 파일 수 그리고 인용횟수가 상위 10%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된 학술연구 건수를 하위지표로 구성하고 있다.⁴⁾ 현재 웨보메트릭스에는 우리나라 387개 대학의 2015년 1월 기준 순위만이 제시되어 있다. 2단계에서는 1차 평가 순위에 대한 국내 유명 입시학원 입시 분석가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순위를 확정하였다. 분석에는 4년제 대학에 한정하여, 대학 순위 1~40위를 “가”그룹, 41~80위를 “나”그룹, 81~120위를 “다”그룹, 121위 이하를 “라”그룹으로 구분하고 “나”그룹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분석하였다.

취업역량 요인으로 대학성적은 졸업평점을, 외국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을 어학연수 경험자로, 졸업 후 첫 취업 이전에 1년 이상 시험을 준비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증 취득자로, 졸업 후 첫 취업 이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훈련 경험자로, 재학 중에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 쌓기를 목적으로 일한 경우만을 일경험자로 분석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은 재학 중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직장체험프로그램, 인·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교내 취업박람회, 진로 관련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면접기술, 취업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을 모두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요인⁵⁾으로 졸업대학 소재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후 비수도권을 기준그룹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4)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www.webometrics.info를 참고하면 된다.

5) 대학 소재지와 의중·시장임금 갭뿐만 아니라 지역별 청년층 평균임금, 산업구조 등을 추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끝으로 의중-시장임금 갭과 관련하여 의중임금은 취업을 통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소득으로 졸업 전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2011년 8월과 2013년 8월 시점에서는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졸업 후 첫 취업을 관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취업자 의중임금은 그 시기까지 첫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졸업자의 응답값만이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취업자 시장임금은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첫 취업에 성공하여 받고 있는 임금을 사용하였다. 한편 미취업자는 시장임금이 관찰되지 않아 취업자의 임금함수를 추정 후 미취업자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잠재 시장임금을 추정하였다. 미취업자가 언제 취업하느냐에 상관없이 신규 대졸자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의 시장임금은 시간불변의 값을 갖는다. 반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은 관찰시점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의중-시장임금 갭은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시간변동 변수가 된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설명변수 중에 배우자 유무, 자격증 유무, 교육훈련 참가 여부 등도 구직기간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시 시간변동 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미취업자 시장임금 추정을 위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법

미취업자의 의중임금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개인별 의중임금 데이터 확보에 문제가 없다. 반면 미취업자가 졸업 후 첫 취업했을 때 기대되는 시장임금은 직접 관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자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미취업자의 특성을 추정된 임금함수에 대입하면 간접적으로 시장임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된 표본(취업자)의 선택이 모집단(취업자+미취업자)으로부터 비무작위적으로 이뤄진 경우 해당 표본을 대상으로 한 OLS 추정량은 편의추정량이 되는데, 이러한 표본선택 편의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택(취업 여부)방정식의 설명변수에는 성, 연령, 연령제곱, 전공, 평점, 배우자 유무, 입학 당시 부모소득,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등을 포함하였고,⁶⁾ 임금함수에는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첫 직장 월

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에는 성, 연령, 출신대학 유형, 전공, 명성(4년제 대졸자), 어학연수 경험, 일 경험, 졸업대학 소재지 등을 포함하였다.

나. 확장형 콕스 회귀분석(Extended Cox-Regression)

절단 자료를 포함한 기간분석 방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에 사용되는 위험률(Hazard Rate)을 살펴보겠다(Greene, 2008). 먼저 확률 변수 T의 연속 확률분포를 $f(t)$ 로 정의하고, t가 확률변수 T의 관찰 값이라고 가정하면 누적 확률 분포함수 $F(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t) = \int_0^t f(s)ds = \text{Prob}(T \leq t)$$

또한 기간변수 T가 t기간까지 생존(지속)한 이후 다음기간(Δt)에 사망(탈출)할 확률, 즉 위험률(Hazard Rate)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t, \Delta t) = \text{Prob}(t \leq t + \Delta t | T \geq t)$$

위 식을 일반화한 위험률은 ‘기간변수 T가 최소 t기간까지 생존(지속)한 후 바로 다음 기간에 사망(탈출)할 순간 위험률(탈출률)’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ambda(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text{Prob}(t \leq T \leq t + \Delta t | T \geq t)}{\Delta t}$$

Cox의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은 위험률에 대한 가정 대신 기준위험률(baseline hazard rate)을 두고 개인 특성들이 기준위험률에 대비하여 위험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는 준모수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개체 i 의 t 시점에서의 위험률 $\lambda_i(t)$ 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x_1, x_2, x_3, x_4, \dots, x_q$ 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박재빈, 2007).

$$\lambda_i(t) = \lambda_0(t)e^{\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q x_q}$$

6) 익명의 심사자는 추가적으로 대학 소재지, 어학연수, 일 경험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lambda_0(t)$ 는 기준위험률(baseline hazard rate)을 의미하며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환된다.

$$\log \lambda_i(t) = \log \lambda_0(t)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dots + \beta_q x_q$$

비례위험모형에서 β 의 추정은 Cox(1972)가 제안한 사건이 발생한 때의 우도만 고려하고 절단에 대한 우도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우도(Partial Likelihood)를 이용한다.

$$PL = \prod_{j=1}^k L_j \quad (j=1, 2, 3, \dots, K)$$

이 방법에서 L_j 의 분모는 사건이 발생할 때의 위험세트에 속해 있는 개체의 수로서 j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생존한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이를 $R(t_j)$ 로 표시하면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L_j = \frac{1}{R(t_j)}$$

그러나 설명변수의 영향으로 개체마다의 위험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L_j 는 j 번째 사건이 일어난 개체의 해저드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그때에 위험세트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체의 위험률을 합한 것이 된다. 설명변수가 x 로 하나인 경우에 L_j 는 다음과 같다.

$$L_j = \frac{e^{\beta x_i}}{\sum_{m \in R(t_j)} e^{\beta x_m}} \quad (m \in R(t_j) \text{는 } m \text{개가 시점 } t_j \text{에서 위험세트에 포함됨을 의미})$$

이를 바탕으로 부분우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L = \prod_{j=1}^K \frac{e^{\beta x_j}}{\sum_{m \in R(t_j)} e^{\beta x_m}}$$

지금까지의 분석방법은 생존확률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값이 고정된 경우로 시간에 따라 설명변수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장형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이라고 부른다. 이 모형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위험세트에 속하는 개체를 추려내고 그때의 시간변동변수 값을 사용하여 일반적 콕스 비례적 위험모형에서와 같이 모수 β 를 추정하게 된다.

IV. 분석 결과

1. 표본 특성별 분포 및 구직기간

<표 1>에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 특성별 분포와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남성이 5,315명(51.4%)으로 여성보다 많았지만, 구직기간은 여성(7개월)이 남성(6개월)보다 길었다. 연령별로는 24~27세가 6,032명(58.3%)으로 가장 많았지만, 구직기간은 23세 이하(5개월)가 가장 짧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4년제 졸업자가 7,606명(73.5%)으로 전문대 졸업자보다 많았고, 구직기간도 4년제(7개월)가 전문대(4개월)보다 길었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2,683명, 25.9%)과 공학계열(2,496명, 24.1%)이 전체 중 50%를 차지하였고, 구직기간은 의약계열(2개월)이 가장 짧고 교육계열(13개월)이 가장 길었다. 일 경험자와 어학연수 경험자는 각각 1,198명(11.6%)과 662명(6.4%)으로 많지 않았고, 구직기간은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짧았다.

계속해서 대학 명성이 “가”그룹인 표본이 3,024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라”그룹에 속한 표본은 879명(11.6%)으로 나타났다. 대학 명성별 구직기간은 “가”와 “나”그룹이 7개월, “다”그룹이 8개월, “라”그룹이 6개월로 나왔다. 대학 입학 당시 부모소득이 월평균 300만~500만 원 미만이라는 표본이 4,185명(41.4%)으로 가장 많고, 700만 원 이상자도 772명(7.6%)으로 적지 않았다. 구직기간은 입학 당시 부모소득이 많을수록 짧았다. 이어서, 관찰기간 동안 졸업 후 첫 취업에 성공한 표본이 8,590명(82.7%)인 반면, 졸업 후 4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표본이 1,754명(17.3%)으로 적지 않았다. 끝으로,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기간의 중위값(median)은 6개월이다.

〈표 1〉 표본 특성별 분포 및 구직기간

(단위: 명, %, 개월)

		표본수	비율	중위값	log rank χ^2 값
		10,344	100.0	-	-
성***	남성	5,315	51.4	6	25.65
	여성	5,029	48.6	7	
연령	23세 이하	2,759	26.7	5	2.17
	24~27세	6,032	58.3	7	
	28~34세	1,553	15.0	7	
최종학력***	전문대	2,738	26.5	4	9.88
	4년제	7,606	73.5	7	
전공***	인문	1,023	9.9	10	357.52
	사회	2,683	25.9	8	
	교육	883	8.5	13	
	공학	2,496	24.1	5	
	자연	1,206	11.7	8	
	의약	872	8.4	2	
	예체능	1,181	11.4	9	
일 경험***	없음	9,146	88.4	7	13.84
	있음	1,198	11.6	5	
어학연수***	없음	9,682	93.6	6	6.79
	있음	662	6.4	5	
대학 명성***	“가”그룹	3,024	39.8	7	21.71
	“나”그룹	2,303	30.3	7	
	“디”그룹	1,400	18.4	8	
	“리”그룹	879	11.6	6	
입학 당시 부모소득***	100만 원 미만	345	3.4	6	24.07
	100~300만 원 미만	3,715	36.7	7	
	300~500만 원 미만	4,185	41.4	6	
	500~700만 원 미만	1,103	10.9	6	
	700~1,000만 원 미만	440	4.3	5	
	1,000만 원 이상	332	3.3	4	
취업 여부	취업	8,590	82.7	-	-
	미취업	1,754	17.3	-	

주: ***, **, *는 각각 0.01, 0.05,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의중-시장임금 갭 추정

다음으로 대졸자의 졸업 전 의중임금,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시장임금 그리고 의중-시장임금 갭을 살펴보겠다.

<표 2>에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자의 졸업 전 월평균 의중임금이 제시되어있다. 4년제 졸업자의 의중임금이 230.5만 원으로 전문대 졸업자의 186.4만 원보다 약 45만 원 많았다. 전문대와 4년제 졸업자 간에 표본 특성별 의중임금의 경향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4년제 졸업자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여성보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보다(전문대는 반대), 의약 및 공학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어학연수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의중임금이 높게 나왔다. 대학 명성의 경우에도 명성이 좋을수록 의중임금이 증가했는데, “가”그룹의 의중임금이 253.6만 원으로 “라”그룹의 203.7만 원보다 약 50만 원이 많았다.

<표 2>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자의 졸업 전 의중임금

(단위: 만 원)

		전문대 졸업자		4년제 졸업자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전 체		186.4	54.2	230.5	75.9
성별	여성	174.0	50.4	214.2	66.4
	남성	201.1	55.0	244.6	80.7
대학 유형	사립대	186.2	54.6	229.9	81.0
	국·공립대	190.5	44.9	231.8	59.9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188.6	55.9	219.4	65.4
	수도권	183.9	52.2	247.1	86.8
전공 계열	인문	193.1	80.5	215.1	60.6
	사회	179.9	50.1	229.0	62.9
	교육	168.9	37.2	218.9	51.6
	공학	196.2	53.4	245.3	58.4
	자연	177.8	48.6	226.3	81.9
	의약	201.6	49.6	281.2	168.1
	예체능	171.3	56.9	209.5	92.2
어학 연수	없음	186.2	54.4	229.3	76.9
	있음	204.2	37.0	243.1	63.0
대학 명성	“가”그룹	-	-	253.6	72.9
	“나”그룹	-	-	222.3	61.2
	“다”그룹	-	-	210.7	98.2
	“라”그룹	-	-	203.7	55.8
표본수		2,738		7,606	

이어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업자의 시장임금은 조사에서 파악된 월평균 임금을 사용하고, 미취업자가 취업했을 때 기대되는 시장임금은 취업자 임금함수에 미취업자의 특성을 대입하여 얻은 예측치를 사용한다.

<표 3>에는 GLS로 취업자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⁷⁾ 추정결과에 따르면, 남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4년제 졸업자만), 수도권, 교육계열(4년제만)과 의약계열(전문대만)이 다른 계열보다, 어학연수와 일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4년제만) 임금이 높았다. IMR은 전문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4년제 졸업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현재 취업자보다 미취업자의 임금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학 명성이 “나”그룹에 비해 “가”그룹은 월평균 임금이 약 35만 원 증가한 반면, “다”와 “라”그룹은 20만 원이 감소하였다.

<표 3>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자의 시장임금함수 추정 결과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졸자
상 수		97.6(21.08)***	151.1(24.175)***
성별(남성=1)		20.7(3.547)***	18.0(3.841)***
연령		2.5(0.704)***	5.5(0.915)***
대학유형(국·공립=1)		7.1(6.557)	10.3(3.458)***
대학소재지(수도권=1)		11.7(2.668)***	20.8(3.129)***
전공 (기준그룹 : 인문)	사회=1	-3.2(6.440)	1.4(3.869)
	교육=1	-17.0(11.485)	40.3(5.544)***
	공학=1	7.8(7.068)	-2.5(5.105)
	자연=1	6.8(7.719)	-6.5(4.793)
	의약=1	21.9(10.463)**	-6.6(7.827)
	예체능=1	-10.1(7.141)	-26.6(5.144)***
어학연수(경험자=1)		11.7(10.205)	8.2(3.536)**
일 경험(경험자=1)		-0.8(4.291)	5.6(3.154)*
Invmills		-25.0(16.950)	-41.2(11.353)***
대학 명성 (기준그룹 : “나” 그룹)	“가”그룹=1	-	36.5(3.356)***
	“다”그룹=1	-	-20.4(3.065)***
	“라”그룹=1	-	-20.1(3.331)***
표본수		1,489	3,656
F-value		27.03***	116.6***
R ²		0.256	0.311

주: ***, **, *는 각각 0.01, 0.05,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 값은 robust 표준오차.

7) 취업여부에 대한 프로빗 추정 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부표 2>에는 취업자의 관찰된 시장임금과 위에서 추정된 임금함수에 미취업자의 특성을 대입하여 얻은 예측된 시장임금의 평균이 제시되어 있다. 관찰된 월평균 시장임금과 예측된 월평균 시장임금 차이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5만 원 내외로 크지 않았다. 반면, 4년제 졸업자는 임금 차이가 약 10만~15만 원 정도로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크게 나왔다.

<표 4>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자의 의증-시장임금 갭

(단위: 만 원)

		전문대 졸업자			4년제 졸업자		
		의증 임금	시장 임금	임금 갭	의증 임금	시장 임금	임금 갭
전 체		186.4	159.1	27.3	230.5	207.0	23.5
성별	여성	174.0	147.1	26.9	214.2	183.8	30.4
	남성	201.1	173.6	27.5	244.6	227.3	17.3
연령	23세 이하	174.8	148.2	26.6	199.9	170.7	29.2
	24~27세	199.4	171.3	28.1	232.2	207.8	24.4
	28~34세	201.5	175.0	26.5	252.7	238.1	14.6
대학유형	사립대	186.2	158.8	27.4	229.9	203.8	26.1
	국·공립대	190.5	166.9	23.6	231.8	216.0	15.8
대학 소재지	비수도권	188.6	156.7	31.9	219.4	192.4	27.0
	수도권	183.9	161.8	22.1	247.1	229.1	18.0
전공계열	인문	193.1	147.1	46.0	215.1	191.8	23.3
	사회	179.9	147.9	32.0	229.0	203.2	25.8
	교육	168.9	137.5	31.4	218.9	197.5	21.4
	공학	196.2	174.1	22.1	245.3	240.2	5.1
	자연	177.8	160.4	17.4	226.3	195.6	30.7
	의약	201.6	178.0	23.6	281.2	236.6	44.6
	예체능	171.3	139.8	31.5	209.5	162.2	47.3
어학 연수	없음	186.2	158.9	27.3	229.3	205.8	23.5
	있음	204.2	177.3	26.9	243.1	220.9	22.2
일자리 경험	없음	186.9	159.4	27.5	230.3	205.7	24.6
	있음	180.0	155.1	24.9	231.8	215.7	16.1
대학 명칭	“가”그룹	-	-	-	253.6	242.9	10.7
	“나”그룹	-	-	-	222.3	195.2	27.1
	“다”그룹	-	-	-	210.7	173.3	37.4
	“라”그룹	-	-	-	203.7	168.3	35.4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한 월평균 의중-시장임금 갭이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4년제 졸업자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겠다. 먼저, 전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갭(23.5만 원)뿐만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을 기준으로 한 갭에서도 모두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 졸업자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표본 특성별로 임금 갭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사립대, 비수도권, 예체능 및 의약계열, 어학연수와 일자리 미경험자, 대학 명성이 낮을수록 월평균 의중임금과 시장임금 사이의 갭이 더 크게 나왔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수준에서 평균 차이로 개인의 첫 취업 구직기간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의중-시장임금 갭이 첫 취업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효과

대졸자의 의중-시장임금 갭이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확장형 콕스 회귀모형으로 추정하였다(표 5 참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성별 추정결과도 함께 살펴보겠다.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미취업 탈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전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종학력은 성별에 따라 효과가 다른데, 남성은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탈출확률이 낮아졌다.

전체 표본 대상에서 졸업대학이 국·공립대인 경우가 사립대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았지만, 성별 분리 추정에서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지만 여성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공은 전체 대상에서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 공학, 자연, 의약계열의 미취업 탈출확률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남성의 경우 여기에 예체능계열이 추가되고, 여성은 사회와 자연계열이 제외된다.

다음으로 전체 및 성별 분리 추정 모두에서 졸업 평점이 높을수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수가 증가할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어서, 어학연수 경험자(여성 제외), 일 경험자, 자격 취득자(남성 제외), 훈련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입학 당시 부모소득이 300만~500만 원 미만에 비해 100만~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은 반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탈출확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지만, 이러한 효과는 전체와 여성에게만 나타나 남성의 미취업 탈출확률에는 부모소득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남성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학연수, 일 경험, 자격, 훈련 등에 대한 투자수준을 통제하면 대체적으로 취업역량 요인에 대한 투자가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중-시장임금 갭의 값이 커질수록 미취업 탈출(즉, 취업)확률이 높아 구직기간이 단축되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비록 의중-시장임금 갭이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추정계수 부호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즉, 의중-시장임금 갭의 값이 커진다는 의미는 시장임금이 고정이라면 의중임금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 값이 증가하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서 구직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중-시장임금 갭이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로 분리 추정하면 다른 결과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대처럼 의중-시장임금 갭의 값이 커질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여성 대졸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구직기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여성 대졸자의 실업원인이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남성의 경우는 의중-시장임금 갭의 값이 커질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높아 구직기간이 단축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를 달리 보면, 시장임금이 고정이라면 의중임금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최종학력별 성별로 분리 추정한 결과를 이어서 살펴보겠다.

〈표 5〉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 영향요인 추정

		전 체	남성	여성
성별(남성=1)		0.083(0.029)***	-	-
연령		0.008(0.007)	0.017(0.010)*	-0.000(0.010)
교육연수		-0.002(0.016)	0.065(0.022)***	-0.070(0.022)***
대학유형(국·공립=1)		-0.051(0.030)*	-0.050(0.040)	-0.048(0.046)
대학 소재지(수도권=1)		0.057(0.024)**	0.089(0.033)***	0.017(0.035)
전공 (기준그룹: 인문)	사회	0.105(0.042)**	0.179(0.067)***	0.042(0.055)
	교육	-0.062(0.056)	-0.162(0.100)	-0.036(0.069)
	공학	0.336(0.043)***	0.461(0.065)***	0.146(0.070)**
	자연	0.128(0.048)***	0.232(0.076)***	0.051(0.063)
	의약	0.609(0.054)***	0.715(0.092)***	0.485(0.068)*
	예체능	0.019(0.050)	0.134(0.080)*	-0.067(0.064)
졸업평점		0.176(0.028)***	0.214(0.038)***	0.118(0.042)***
어학연수(경험자=1)		0.108(0.045)**	0.215(0.060)***	-0.003(0.068)
일 경험(경험자=1)		0.099(0.034)**	0.085(0.051)*	0.114(0.046)**
취업지원 프로그램		0.034(0.006)***	0.039(0.008)***	0.028(0.009)***
자격(취득자=1)		0.064(0.029)**	0.011(0.043)	0.102(0.038)***
훈련(참여자=1)		0.260(0.085)***	0.245(0.109)**	0.284(0.137)**
부모소득 (기준그룹: 300만~ 500만 원 미만)	A	0.001(0.063)	0.037(0.080)	0.003(0.103)
	B	-0.049(0.025)*	-0.005(0.034)	-0.095(0.037)***
	C	0.039(0.037)	0.026(0.054)	0.056(0.051)
	D	0.049(0.055)	0.017(0.078)	0.077(0.078)
	E	0.147(0.062)**	0.089(0.083)	0.217(0.092)**
배우자(유=1)		-0.447(0.088)***	0.191(0.109)*	-1.057(0.148)***
의중-시장임금 갭		0.000(0.000)	0.000(0.000)*	-0.000(0.000)
표본수		10,224	5,257	4,967
관측수		145,790	70,840	74,950
LR χ^2		480.22***	295.65***	287.45***

주: 1) ***, **, *는 각각 0.01, 0.05,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 값은 표본오차임.

2) 부모소득 A=100만 원 미만, B=100만~300만 원 미만, C=500만~700만 원 미만, D=700만~1,000만 원 미만, E=1,000만 원 이상.

<표 6>은 전문대와 4년제 졸업자에 대한 성별 분리 추정 결과 중 의중-시장 임금 갭이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8)

8) 분석에는 성, 연령, 대학유형, 대학 소재지, 전공, 평점, 어학연수, 일 경험,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 자격, 훈련, 부모소득, 배우자 유무, 대학 명성(4년제만) 등을 통제하였다.

〈표 6〉 의중 - 시장임금 갭이 구직기간에 미치는 효과

	전 체	남성	여성
전문대	-0.000(0.000)	-0.000(0.001)	0.000(0.001)
4년제	0.000(0.000)***	0.000(0.000)***	-0.000(0.000)

주: ***, **, *는 각각 0.01, 0.05,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 안 값은 표본오차임.

전문대의 경우 전체 및 성별 분리 추정 모두에서 의중-시장임금 갭이 구직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4년제 졸업자의 경우 전체와 남성에서 의중-시장임금 갭의 값이 커지면, 미취업 탈출확률이 증가하여 구직기간이 단축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의중-시장임금 갭(눈높이 조정)의 효과를 정리하면,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여성 졸업자의 경우는 눈높이 조정이 구직기간을 단축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4년제 남성 졸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임금이 고정이라면 의중임금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져 눈높이 조정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렇다면 4년제 남성 졸업자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단초는 고시 및 7·9급 공무원, 공사, 노무사 등과 같은 공무원이나 면허성 전문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公試族)에서 찾을 수 있다.

<표 7>에는 2011년 1차 조사에서 파악한 대학 재학 중 또는 현재까지 공무원 및 면허성 전문자격 시험 준비 경험자의 비율과 졸업 전 의중임금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체 표본 중 시험 준비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1.7%였으며, 4년제 졸업생의 경험 비율은 25.1%로 더 증가하였다. 4년제 졸업생(교육대 제외)의 성별로는 여성(28.2%)이 남성(22.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다음으로 4년제 남성 졸업자의 대학 명성별 경험 비율은 “가”와 “나”그룹이 각각 26.0%와 21.7%였으며,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내 구성비는 “가”와 “나”그룹이 각각 45.8%와 28.2%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공무원 및 면허성 전문자격 시험 준비자는 명성이 높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졸업 남성 공시족의 의중임금이 240.9만 원으로 비공시족 의중임금인 245.2만 원보다 적었고, 대학 명성별로도 “라”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동일하였다.

〈표 7〉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 비율 및 의중임금

(단위: %, 만 원)

		시험 준비 경험 비율	의중임금		졸업 6개월 후 취업자 임금	
			공시족	비(非)공시족		
전 체	전 체	21.7	226.0	216.8	197.9	
	최종 학력	전문대	7.0	195.8	185.7	160.3
		4년제	25.1	229.2	231.1	213.5
		교육대	93.2	225.4	221.7	206.3
4년제 졸업자	성별	남성	22.5	240.9	245.2	233.9
		여성	28.2	216.0	213.0	183.6
4년제 남성 졸업자	대학 명칭	전 체	22.5(100.0)	240.9	245.2	233.9
		“가”그룹	26.0(45.8)	258.5	266.8	268.2
		“나”그룹	21.7(28.2)	228.2	241.3	234.2
		“다”그룹	20.7(18.1)	216.1	228.8	193.0
		“라”그룹	15.5(7.9)	220.1	214.7	187.5

주:() 안 값은 구성 비율임.

이제 4년제 남성의 경우 시장임금이 고정이라면 의중임금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시장임금을 갖는 두 졸업자가 있고, 이들 중 한 명만이 공무원 시험 준비자라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동일한 임금으로 일자리 제의를 받는다면, 시험 비준자는 제의된 시장임금이 의중임금보다 크면 취업하지만, 시험 준비자는 이 경우에도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고 구직자로 남아 있게 되어 시장임금이 고정이라면 의중임금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처럼 4년제 남성 졸업자가 시장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공무원 및 면허성 전문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일자리가 노동시장에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눈높이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일시적인 임금지원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에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최종학력(전문대, 4년제)과 성별로 집단을 나눈 후 각 집단에서 대졸자의 의중-시장임금 갭이 의미하는 눈높이 불일치가 취업을 저해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중위값은 6개월이며, 4년제가 7개월로 전문대의 4개월보다 더 길었다. 둘째, 4년제 졸업자의 졸업 전 월평균 의중임금은 230.5만 원, 전문대 졸업자는 186.4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 6개월 후의 월평균 시장임금은 4년제가 207.0만 원, 전문대가 159.1만 원으로 의중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더 낮았다. 셋째,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변수로는 성(남성), 연령(남성만), 최종학력(남성은 높을수록 여성은 낮을수록), 국·공립대, 수도권(남성만), 공학 및 의약계열, 대학평점,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수, 어학연수(남성만), 일 경험, 자격(여성만), 직업훈련, 입학 당시 부모소득(여성만) 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취업을 위한 어학연수(1년 이상), 일 경험(취업 위한 경험 쌓기), 자격증 취득(1년 이상 준비), 훈련참여(6개월 이상) 등과 같은 취업역량 강화 활동의 내실화는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었다. 넷째, 4년제 대졸자에 국한하여 대학 명성의 차이가 시장임금에 영향을 주었고, 남성에 제한되기는 하나 구직기간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기준그룹인 “나(41~80위)”그룹에 비해 “가(1~40위)”그룹의 월평균 임금이 약 35만 원 더 많은 반면, “다(81~120위)”와 “라(121위 이하)”그룹은 20만 원이 더 적었다. 구직기간의 경우에는 “나”그룹과 “가”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와 “라”그룹은 “나”그룹에 비해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았지만 “다”그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의중-시장임금 갭이 의미하는 눈높이 불일치는 전문대와 4년제 여성

졸업자의 구직기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집단의 실업이 자발적 성격보다는 비자발적 성격이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4년제 남성 졸업자의 경우에는 의중-시장임금 갭의 절대값이 증가할수록 미취업 탈출확률이 낮아져 구직기간이 길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른바 공시족(公試族)이 대학 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년제 남성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시족을 선택하는 이유가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성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업도 괜찮은 일자리 부족에 의한 비자발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노동공급 측의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눈높이 조정만으로는 대졸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수요 측은 청년채용을 확대하되 그 일자리가 불완전한 형태를 띄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분석에 사용한 졸업 전 의중임금에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졸업 전 의중임금 조사시점이 대학 졸업 후 18~2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졸업 후 첫 취업을 임금근로이면서 상용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종사자 규모나 임금과 같은 취업의 질적 차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별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안국(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졸업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8(3): 39~76.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141~165.
- 김종화·유태현·이상호·전윤구(2007). 『청년실업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방안 연구』.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

- 남기곤(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5 (2): 99~123.
- 노경란 · 박용호 · 허선주(2011).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4 (2): 55~81.
- 박성재 · 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 (3): 29~50.
- 박재빈(2007). 『생존분석: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 신종각 · 김정호(2008). 「대졸자 첫 취업기간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이슈』 25: 1~22.
- 신혜숙 · 민병철 · 남수경(201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성과에 대한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효과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 (2): 201~223.
- 안주엽 · 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 (1): 47~74.
- 안준기(2009). 「어학연수가 졸업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7 (2): 203~231.
- 유홍준 · 정태인 · 전은주(2014). 「한국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성과」. 『한국인구학』 37 (2): 49~69.
- 이규용 ·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 (2): 69~94.
- 이병희 · 윤윤규 · 김주영 · 정성미(2009).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우현(1995).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확률의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18 (1): 107~128.
- _____(1998). 『노동경제학』 법문사.
- 채구목(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 (4): 35~61.
- 채창균 ·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

연구』 28 (2) : 89~107.

Cox, D. R.(1972). “Regression Models and Life-Tables(with Discussion)”. *Journal for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34 (2) : 187~220.

Greene, W. H.(2008). *Econometric Analysis. sixth edition*.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Kaufman, B., and J. Hotchkiss(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s*, Thomson South-Western, Chapter 13.

Mortensen, D.(1986).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pp.849~920.

〈부표 1〉 졸업 6개월 후 취업확률 Probit 추정 결과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졸자
상수		-1.839(1.998)	2.675(1.911)
성별(남성=1)		-0.128(0.073)*	0.159(0.042)***
연령		0.053(0.159)	-0.281(0.145)*
연령제곱		-0.001(0.003)	0.005(0.003)*
전공 (기준그룹: 인문)	사회	0.251(0.136)*	0.077(0.051)
	교육	0.908(0.189)***	-0.329(0.065)***
	공학	0.350(0.139)**	0.395(0.054)***
	자연	0.310(0.153)**	0.088(0.059)
	의약	0.843(0.140)***	0.773(0.086)***
예체능		0.118(0.139)	0.084(0.065)
대학 평점		0.225(0.057)***	0.231(0.039)***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		0.045(0.013)***	0.049(0.008)***
부모소득 (기준그룹: 300만~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0.039(0.124)	-0.029(0.091)
	100만~300만 원 미만	0.001(0.055)	-0.103(0.034)***
	500만~700만 원 미만	0.261(0.102)**	0.043(0.048)
	700만~1,000만 원 미만	-0.044(0.178)	0.107(0.069)
	1,000만 원 이상	-0.032(0.182)	0.259(0.081)***
배우자(유배우자=1)		-0.387(0.183)*	0.085(0.118)
표본수		2,673	7,551
LR χ^2		182.05***	406.14***

주: ***, **, *는 각각 0.01, 0.05, 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하며, ()안 값은 표본오차임.

〈부표 2〉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자의 월평균 시장임금

		전문대 졸업자			4년제 졸업자		
		(A) 관찰	(B) 예측	(A)-(B)	(C) 관찰	(D) 예측	(C)-(D)
전 체		160.3	157.7	2.6	213.4	201.0	12.4
성별	여성	149.2	144.0	5.2	186.9	181.2	5.7
	남성	175.7	171.3	4.4	233.9	220.3	13.6
전공 계열	인문	146.7	147.4	-0.7	198.2	187.1	11.1
	사회	146.8	149.1	-2.3	207.8	199.2	8.6
	교육	138.3	134.8	3.5	192.7	199.6	-6.9
	공학	174.5	173.6	0.9	244.1	234.6	9.5
	자연	160.4	160.5	-0.1	197.2	194.2	3.0
	의약	177.4	179.7	-2.3	236.4	236.9	-0.5
예체능		138.9	140.6	-1.7	163.6	161.0	2.6
대학 명성	“가”그룹	-	-	-	250.6	235.3	15.3
	“나”그룹	-	-	-	200.2	190.6	9.6
	“다”그룹	-	-	-	177.5	169.9	7.6
	“라”그룹	-	-	-	172.0	164.5	7.5
표본수		1,511	1,184	-	3,684	3,895	-

abstract

Effects of the Gap between Reservation and Market Wage on the Period to Get First Job

CHOI Ki Sung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whether or not the gap between reservation wage and market wage would hinder graduates' getting first job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dian period to get their first jobs was 6 months. Second, the monthly average reservation wage for university students was KRW 2,305 thousand, which was higher than the market wage of KRW 2,070 thousand, and the reservation wage for college graduates was KRW 1,864 thousand, which was higher than the market wage of KRW 1,591 thousand.

Third, variables that can shorten the period required for getting the first job included gender, age, education level,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Seoul metropolitan area, major, Grade Point Average (GPA), number of participating in employment support programs, number of years studying foreign language overseas, job experience, qualifications, training, and parents' income when admitted to universities. Fourth, the gap between reservation and market wage did not really have an impact on the job seeking period of the entire technical college graduates and university femal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university male graduates, as the absolute gap between reservation and market wage increased, the probability exiting from unemployment decreased, thereby protracting the job seeking period. This seems due to large scale of young people preparing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s.

Keywords : the gap between reservation and market wage, the period to get first job, extended cox-regression